



1958

서울 도심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다. 당시에는 소방차와 소방관이 없었으며 1976년 철거됐다.

원인식 제공

119

글 조보희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119를 찾게 됩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집니다. 하는 일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 화재 조사, 예방 교육 등 다양하다 보니 출동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119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현장에서 분투하는 119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모아 봤습니다.

1995

산림박물관 불리 현장 구조작업



1994



성수대교 불리 현장 구조작업



2016

서울시 뚝장 소방관



2018

고양시 저유소 화재 진화작업



2019

해빙기 수난사고 구조훈련

2004



산척에서 홍수로 고립된 대학생 구조작업

2020



대전 소방기동경관대회